

농수산물 공설시장 조성

- 서울·부산등 6 대도시에 -

농수산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부산등 6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공설시장을, 여타도시에 제한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공설시장조성을 추진하고 시설확충 및 대형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존도매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거래질서 확립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27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는 84년에 완공될 서울가락동 농산물 종합시장 건설에 맞추어 주요도시에 전국권 유통의 중추기능을 할 대형도매시장 건설을 유도함으로써 산지직거래 체제를 확충, 농수산물의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판로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와 아울러 현재 획일적인 도매시장시설 기준을 필수및 일반시설로 구분하고 도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며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정착화하고 農畜水協 공판장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생활 개선 실천대회

- 식량절약 및 영양증진운동을 추진 -

식생활 개선을 통한 식량 절약 및 영양증진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식생활개선 실천대회가 16일 오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박

종문농수산장관을 비롯한 관계인사 및 주부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회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식생활 개선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朴농수산장관은 「세계적으로 식량이 하나의 무기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의 소중함을 재인식 해야겠다.」고 말하고 「보리혼식을 10% 더 늘리면 연간 6백 70여만섬의 쌀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주부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식생활 개선운동에 공이큰 유태종 고대교수등 11명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수입쇠고기 모두 포장판매

- 내년부터 생산업체도 크게 늘려 -

농수산부는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수입쇠고기전량을 포장육으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해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민간업체의 포장육생산을 완전자유화할 것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축협에 따르면 매년 쇠고기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공급량만 가지고는 수요에 따르지 못해 지난 76년 처음으로 7백톤(정육기준)을 수입한 이후 해마다 수입량을 늘려 금년에 3만9천톤을 도입하게 되는데 매년 상당한

양이 한우로 둔갑, 일부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가운데 쇠고기 파동을 부채질 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포장은 작년 9월부터 시판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수입쇠고기의 50%는 지육상태로 공급돼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로 알고 비싸게 사 먹는 경우가 많아왔다.

이같은 현상은 수입지육(정육)을 도매시장으로 출하, 일반경매에 붙이기 때문에 수입전문판매점은 물론 한우전문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포장육이 시판된 이후 최근들어서는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다소 개선되면서 포장육원료로의 공급량이 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전체의 40~50% 정도는 지육상태로 도매시장에 방출되고 있어 한우 둔갑의 여지는 많은 실정이다.

한편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전량을 포장육으로만 생산, 판매토록할 경우 민간생산 업체에 대한 원료및 제품관리를 통해 지육이 그대로 정육점이나 대량음식점 등 대량수요처로 빠져나갈 가능성만 봉쇄하면 더 이상 소비자들이 속는 일은 없어질 것 같다.

중소기업용지로 농지전용 허용

- 농외소득증대 위해 시행령 고쳐 -

국무회의는 7일 하오 농지의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농촌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중소기업규모공장의 용지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은 농가당 1천m² (3백평)이하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않고서도 상대농지를 농가주택및 그 부속시설의 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읍면지역의 3천5백m² (약 1천평)이하의 상대농지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동물약품수입 외화 증액

농수산부는 금년에 돼지와 닭의 사육 수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1,620만불로 책정되었던 외화배정액을 350만불정도 증액하기로 하였다.

9월말까지 사용분이 총 1,620만불의 90%인 1,420만불을 사용하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증가되었다. 10월말까지는 1,620만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동물약품제조회사는 37개사이며 판매업체는 6개업체로 합해서 43개 업체이다.

식생활개선 전국 순회강연회

- 한국일보사,

범국민 식생활개선 캠페인으로 -

한국일보사가 벌이고 있는 범국민적 식생활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11월 6일부터 시도별 지방순회 강연회가 개최된다. 동사의 이번 강연회를 통하여 지금의 식생활을 개선해야만 건강 장수할 수 있고 하루 하루의 식단 개선으로 영양관리를 과학화할 수 있는 궁극증을 풀어 줄 것이다.

시도명	일 자	시 간	장 소
청 주	11월 6일(토)	상오11시~13시	예 술 문 화 회 관
대 구	11월 9일(화)	하오 2시~4시	시 민 회 관
부 산	11월 15일(월)	하오 2시~4시	시 민 회 관
대 전	11월 16일(화)	하오 2시~4시	시 민 회 관
진 주	11월 23일(화)	하오 2시~4시	예 술 문 화 회 관
수 원	11월 26일(금)	하오 1시~3시	농협단위조합회의실
광 주	12월 14일(화)	하오 2시~4시	시 민 회 관

강사 및 강연 제목, 일정.
 「식생활과 장수법」- 유태중 (고대교수)
 「식생활개선과 영양관리」- 이영남 (경희대 교수)

서울등 대도시 가축사육 대폭제한

- 도시미관과 시민위생저해요소 없애려 -

원래는 농촌지역이었으나 대도시의 도시구역 확장으로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급속히 시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 대도시 변두리지역에서의 각종 가축사육이 대폭제한된다.

내무부와 농수산부등 정부관계부처는 이른바 스프롤(Sprawl)현상으로 불리는 이들 대도시 외곽지역의 인구팽창과 시가지화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대폭제한키로하고 1차적으로 오는 연말까지 서울에서 가축사육이 허용된 44개동을 26개동으로 축소, 도시미관과 시민위생저해요소를 없애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일 시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개정, 한강상류지역인 강남, 강동, 도봉구 등의 가축사육을 크게 제한해 이미 공사가 시작된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수질오염 대책과 병행추진키로 하고 기타지역도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 가축사육현황은 ▲소 3천5백여마리 ▲돼지 1만8천여마리 ▲닭 28만여마리 ▲개 5만5천여마리등 모두 35만7천여마리로 동전체에 대해 사육이 허용되는 전체허용동이 21개,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는 일부지역허용동이 23개동이다. 서울시는 이를 전체허용 7개동, 일부허용 19개동으로 연말까지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내년부터 허용지역외에서의 가축사육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 과태료를 현행 5천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축협 김일로회장 은탑산업훈장 서훈

- 제 9 회 축산진흥대회에서 -



지난 10월21일 개최된 제 9 회 전국축산진흥대회에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일로회장은 축산진흥유공자로 은탑산업훈장을 서훈한 바 있다.

김일로회장은 경북 경산군 태생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 축산국 축정과장, 축산국장, 기획관리실장, 국립종축장장을 역임 1978년 발족된 축산진흥회 부회장을 거쳐 1980년 축산진흥회 회장으로 발탁 임명된 후, 축협중앙회 발족에 따라 축협중앙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날 대회에서는 경북 영일의 전 신촌부화장 포항지장장 오동근씨가 동탑산업훈장, 강원도 홍천의 유석근씨가 철탑산업훈장, 충북 괴산축협의 김재홍가축개량사가 석탑산업훈장을 농수산부 축산국 축산기과 김기준씨와 경기도 식산국 축산기과 전영기씨가 녹조근정훈장을 농수산부 축산국 가공이용과 이연무 사무관 외 2명이 근정포장을 대한양돈협회 전동용 회장이 외 2명이 산업포장을 농수산부 축산국 사료과 축산기과 조병대씨의 9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 한국축육개량협회 이택룡사무국장 등 11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축협중앙회 양돈사업장장 조홍래씨, 한국사료협회 김세현 기획부장등116명은 농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제 9 회 전국축산진흥 대회 성료 -참피온에 보령군 이철용씨 한우차지-

축산물 수요공급에 대처한 증식의욕 고취와 우량가축을 선발 활용해 가축자질개량, 양축가의 애국심 양양으로 축산진흥 파급효과를 거양키 위한 제 9 회 전국축산진흥대회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마사회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축산진흥대회는 가축품평회(10. 19~20) 전시회(10. 19~21), 시상식(10. 21)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돼지질병으로 인해 한우, 유우, 교잡우만 출품된 가축품평회(심사위원장: 서울대 육종응교수)에서 한우 종모우 참피온에 충남 보령군 남포면 상현리의 이철용씨 소가 차지했다. 참피온이 된 한우는 시상금 3백만원 외에 축협에서 4백만원에 사들여 인공수정용으로 이용하게 된다.

전시회는 정부축산시책 및 축협중앙회 사업, 축산물가공품 및 축산기자재, 배합사료 및 동물약품, 기타가축 등에 대한전시회가 있었다.

21일 시상식에서는 축산발전에 공이 큰 공무



원 및 민간인에게 훈·포장(10명), 대통령 표창(10명), 국무총리 표창(10명), 농수산부장관 표창(116명), 축협중앙회장 표창(64명)등 210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이날 기념식장에서 축협중앙회 김일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축협중앙회 발족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로 축산기반구축의 일대전기가 될 산지초지개발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뜻깊은 대회」라고 전제하고 「축산업은 필수적인 식량자원으로의 비중이 증대되고 복합영농에 의한 농가의 소득원으로 국가적 시대적 각광을 받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축산발전을 위해 땀흘려 일하고 있는 양축농가의 값진 노고에 대해 치하」를 전하고 「축산업은 수요, 농가소득면에서 주곡의 안정적 자급 못지 않게 우리 농정에서 그 비중이 높다」고 밝히는 한편 정부는 축산인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산지개발 10개년 계획'을 마련해 대대적인 산지개발에 의한 초지조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혔다.

국회 농수산분과 이범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축산진흥대회를 통해서 종축의 개량과 관리가 축산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하고 전 축산인은 개인적인 영리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서 국민적과제를 짊어진 역군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지닐것을 당부했다.



'82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총회

- 학술세미나도 개최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 오세정)는 1982년도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총회및 학술세미나를 11월 10일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오세정회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대열에 낀 나라들의 육류소비율중 가금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지적, 우리나라에서는 가금류중 닭고기의 소비향보에 주력해 줄 것을 인사말에 덧붙였다.

그리고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북해도대학의 미가미교수의 「마렉병 백신과 면역」에 관한 강연과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박영인회장의 「기능개선에 의한 생계유통의 생략」이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돈육처리장 곧 신설

- 양돈업계, 천안에 부지확보 -

양돈업계는 축산물 도축시설부족으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수급에 많은 차질을 빚어왔음을 감안 최근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가 주최 되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충남천안에 대단위돈육처리장을 곧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업계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도축시설은 양축가의 권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2일 법인 부지매입과 등기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남천안에 세워질 이 도축장은 부지가 7천8백평이나 된다.

한편 이 돈육처리포장시설이 건설될 경우 밀도살등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도축장의 지육량 눈속임등을 줄일 수 있어 양축가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고구마사료 만들기

- 사료의 자급율을 높이려 -

우리나라는 현재 옥수수등 수입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다른작물에 비해 생산량이 월등히 많은 고구마를 이용, 사료의 자급율을 높여야 한다. 고구마는 단백질·무기물·비타민의 함량이 낮은 반면 열량이 높은 사료이므로 부족된 양분만 보충하면 다른곡물 사료에 비해 손색이 없는 좋은 사료이며 가축또한 즐겨먹는다. 고구마는 주로 식용·공업용 및 종자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하등품과 줄기등을 사료로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가축을 기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농촌진흥청 축산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미국,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 남자보다 여자가 크게 느껴 -

Wisconsin주립대학 사회학교수 Eugene Wilkening 박사가 조사 집계한 바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농촌생활을 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적응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Wisconsin주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209쌍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 생활을 낭만적이라 생각하는 주부는 전체 조사대상의 63%였는데 반해 남자의 경우는 44%에 불과했다. 한편 농업을 순수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남자가 45%였는데 반해 여자의 경우는 20%밖에 안되었다.

그리고 농촌생활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여자는 조사대상의 50% 이상이었으나 남자의 경우는 43%에 지나지 않았으며 농촌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여자의 경우는 54%, 남자의 경우는 44%였다.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이상과 같이 농촌생활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사일에 종사하겠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고 한다.

'82 대성 양계세미나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문제 다뤄 -

양축가와 더불어 성장해온 주식회사 대성미생물연구소(대표 조성용)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문제에 대한 양계세미나를 지난 10월 19일 부산 부전예식장에서 20일에는대구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날로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에 맞춰 국내 축산업규모 또한 확장일로에 있어 전염성 질병예방과 사양합리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금번 세미나는 아주 큰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날 가축위생연구소 최중옥박사의 「ILT 방역대책과 새로운 양계질병 문제점」과 천호부화장 오경록상무의 「양계질병 방역 프로그램 작성법」은 참가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쇠고기자급율 89%까지 연차확대

- 닭고기, 돼지고기 소비구조개선운동도 전개 -

우리나라 쇠고기자급률은 매년 떨어져 올해의 경우 쇠고기 3만 9천톤, 사료곡물 3백30만톤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육류공급을 위해서만 6억 2천 2백만달러, 한화로 약 4천 6백65억원의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쇠고기

소비는 국민소득 1백달러수준이던 63년에 국민 1인당소비량 3kg에서 75년 6kg으로 갑절이 늘어나는데 12년이 걸렸으나 국민소득향상으로 현재에는 10~11kg으로 불과 7년만에 다시 거의 갑절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지조지조성추진과 함께 소의 획기적인 증식을 위해 부락중심의 번식우 사업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번식용 육우 및 유우의 도입을 과감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쇠고기 대신 국내공급이 가능한 돼지고기, 닭고기 먹기의 육류소비구조 개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는 동시에 공정유통을 위한 포장육생산확대,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기적으로는 돼지·닭의 과잉·과소현상으로 인한 생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업농가와 기업양축가 또는 가공업체간의 계약사육을 유도하는 계열화생산체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자금 6천 6백 6 억원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추곡수매가 7.3% 인상

- 2등급 80kg 5만 5천 9백70원, 정부확정 -

올해추곡수매가격 인상이 7.3%로 확정됐다. 박종문 농수산부장은 10월 26일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지난 해보다 7.3% 올려 80kg가마당(정곡 2등급기준) 55,970 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오는 29일부터 정부보유 보리쌀 방출가격을 20%, 혼합곡 방출가격을 12.3% 인상했다.

이같은 추곡수매가격은 벼를 기준으로 하면 메벼54kg들이(2등급 기준) 가마당 27,230 원이 올랐다.

동물백신 유통개선 강력촉구

- 자유경쟁상태에서 백신공급 -

최근 폐지콜레라가 백신을 접종한 폐지에도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양축가들은 백신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약품판매주식회사로 공급체계가 일원화된데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종래 각 백신 제조업체들이 자유경쟁상태에서 백신을 공급하는 것과는 달리 백신공급을 환경약품판매주식회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양축가들은 선호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 없게 됐으며 이로인해 잘못된 백신에 대한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판매공급 체계의 일원화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될뿐아니라 또 하나의 유통단계를 거치게 됨으로써 보관기간이 길어져 약효를 더욱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축가들은 공급체계 일원화를 폐지하고 경쟁을 통해 양축가에게 질 좋은 백신을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백신약효와 관련한 판매업체는 백신이 유통에서 문제가 있지만 양축가들의 접종기술이나 접종매의 환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환경약품판매주식회사는 각 제조업체들이 각각 부담해야 할 냉동보관 시설등 유통비용을 줄이고 덤핑을 막는등 백신유통질서 확립에 주력하고있으며 양축가나 판매점의 의견과 맞서고 있다.

곡물기금설치 검토

- 기획원, 농가생산원가 보전위해 -

경제기획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낸 자료에서 농민의 곡물생산원가를 보전해주기위해 곡

물기금설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곡물기금을 현행 소맥분 가격안정기금과 축산기금중 수입사료원료차액 납입금으로 조성, 특히 하곡수매가의 원료보전과 농민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글케미칼 세미나 개최

- 살원충성 항콕시톱제 아바텍 -



주식회사 이글케미칼(대표 강순조)은 지난달 27일 뉴서울호텔에서 살원충성 항콕시톱제인 아바텍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스위스 로슈사의 슈바트씨는 아바텍의 용법, 아바텍 1kg중 150g의 역가(15%)가 함유되어 있는 라사로스드 소디움의 탁월한 특성등에 관해 강연했다.

육가공협회 설립요청

- 업계 공동발전과 축산진흥위해 -

최근 육가공업체들은 업계의 공동발전과 축산업 진흥을 위해 육가공협회 설립인가를 허가해줄 것을 농수산부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진주를 비롯한 제일제당·롯데햄 등 9개메이커 대표자들은 오는 11월 16일 농

수산부 회의실에서 협회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는데 늦어도 연말이 내에 협회발족을 서둘 것으로 보여진다.

육가공업계에 따르면 육제품소비는 매년 20~30%씩 신장되고 있고 가공업체 또한 10여개가 넘고 있는데도 대변할 창구가 없어 육제품소비확대에 차질을 빚고있을 뿐 아니라 돈육소비촉진도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육제품의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협회가 설립되어 육제품수급동향, 소비추세등이 각 회원사의 정보교류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육가공산업이 아직은 유치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으며 당국과 업계의 교량역할을 담당할 협회의 설립허가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주장했다.

농·축산물 출하조정사업확대

- 비저장성 품목, 출하조정사업 강화 -

농수산부는 생산기와 단경기의 가격차가 심한 농축산물의 수급원활을 위해 고추, 양파, 육류 등 저장 가능한 품목은 정부매입량을 대폭 늘리고 무우, 배추등 비저장성품목은 출하조정사업을 강화하며 특용작물 등 가공원료농산물은 민간가공업계의 매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농축산물 정부매입량을 올해의 3만4천8백t 5백1억원에서 내년엔 4만9천1백t 6백2억원으로 늘리고, 민간매입지원은 74만6천9백t 7백32억원에서 96만t 9백84억원으로, 농가출하조정사업은 32만4천t 2백2억원에서 50만9천t 3백39억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제26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수의학회(회장 임창형)의 제26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9일에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정기총회가 끝난뒤 1발표장과 2발표장으로 나뉜 학술발표장에서 많은 논제들이 발표, 토론되었으며 오후 6시부터는 동연구소 후정에서 조출한 캠페일파티가 참석자 전원이 참석 가운데 열렸다.

은성산업, 사내체육대회

주식회사 은성산업(대표 현순구)은 전 사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양양을 위하여 10월17일 충북 옥천읍소재 옥천고등학교 교정에서 260명 전 사원과 가족 그리고 각계내빈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여 5개팀이 출전, 축구와 배구, 줄다리기, 육상등 각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는데 우승은 기사팀이 준우승은 사료생산부팀이 각각 차지했다.

비육우 내년에 5만마리도입

- 증식위해 모두 암컷으로 -

정부는 내년에 5만마리의 고깃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도 비육우도입 물량을 금년보다 5천마리 더 늘어나는 3만5천마리로 정했으나 희망농가의 신청이 크게 늘어나내다 쇠고기 자급기반의 조기구축을 위해 금년보다 2만마리를 더 늘려 내년부터는 매년 5만마리씩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는 내년부터는 전량을 암컷으로 도입, 증식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보덴 세미나 개최
- 한국의 축산발전에 보덴이 되고자 -



△ 한국 보덴 송아지 사양관리 세미나

주식회사 한국보덴(대표 사병성)은 한국의 축산진흥에 조금이나마 보덴이 되고자 지난 10월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14일에는 부산 조선 비치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NRA(미국동물유지협회) 협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송아지 사양관리에 관한 것으로 미 일리노이즈대학의 Michael F. Hutjens 박사의 알찬 강의가 진행되었다.

일본, 계육수입 12만톤

금년 전반기중의 브로일러 수입은 5만 4,000톤으로 이중 3만 1,600톤은 미국, 1만 6,900톤은 태국이 공급했다. 특히 태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54%가 많은 것이었고, 일본의 금년 수입 총량은 12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일본내의 전반기 생산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7.5%가 많은 72만 4,000톤이었고 평균생체중은 2.325kg으로 지난해 보다 2%가 무거웠다.

제 2 회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 내년도엔 한국유치 계획 -

제 2 회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

이에 한국에서는 한인규박사(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부회장), 송계원 회장(한국축산학회), 지설하 축산시험장장, 그리고 농장팀 17명, 동물약품업체 16명, 사료업체 A, B 팀과 학계팀등 74명이 11월 9일 출국했다.

또한 귀국길에 대만에 들러 축산제반시설과 사료공장을 방문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농수산부, 내년예산규모 4,32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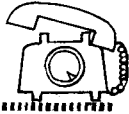
- 복합영농 지원위해 농업개발자금 증액 -

농수산부는 총규모 4천 3백26억원의 내년도 사업의 예산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8.4%가 증가된 것으로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식량증산사업에 올해의 1백26억 7천 6백만원보다 13.3%가 늘어난 1백43억 5천 9백만원을,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엔 올해의 9백52억 5천 3백만원보다 5.4%가 많은 1천 3억 7천 1백만원으로 책정했다.

농수산부는 내년도에 복합영농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농업개발자금을 올해보다 50억원을 증액, 총융자금규모를 올해의 4백80억원에서 6백억원으로 늘렸다.

농수산부는 그러나 내년도에 농특(農特)사업에서 33억 6천 3백만원, 축산사업에서 26억 6천 9백만원, 농업기계화에서 1백11억 8천 7백만원을 올해보다 축소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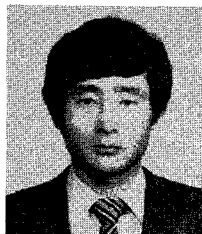
업계단신



○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 : 동협회는 업무확장과 원활을 기하러 기획부 과장대리로 이일형(전 한국웨딩군무)씨를, 지도부에 이성우(강원대 축산과 졸)씨를 각각 채용했다.



〈이 일 형〉



〈이 성 우〉

○ **바이엘<주>(대표 김길원)** : 동사 이영부 상무이사가 바이엘 필리핀사의 초청으로 지난 10월 21일 출국했다. 이영부상무는 약 2개월간 머물면서 제품수출에 따른 업무협의 및 필리핀 수의축산계를 두루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사료이용성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복합소화효소제 「바이셀라제」를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

○ **동남수산(대표 남기수)** : 어분제조판매원인 동양물산은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국내유일의 어분제조업체인 한국화학 사료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동남수산"으로 개칭했다.

동사는 균형있는 품질의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여 발전하는 배합사료 업계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경주하겠다 한다.

본사및공장 :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정하리

41-7

서울사무소 : 종로구 내수동 옥빌딩 402호
전화 : 722-0102~3, 744-5073~4

○ **한호선(농협중앙회이사)** :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이태리의 로마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11월 2일 귀국했다.

○ **녹십자수의약품 <주>(대표 장인상)** : 금년 판매에 공이 높은 동물약품 도매상 대표들과 사내직원등 11명이 민병인 영업이사의 인솔하에 태국, 홍콩등 동남아시아의 축산업계의 시찰과 관광차 10월 7일 출국하여 10월 31일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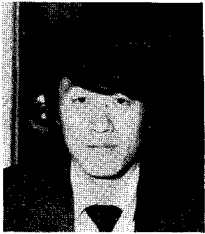
시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병인(녹십자수의약품 영업이사), 김달동(대구축산 대표이사), 김하술(경주양축사대표), 권기남(동홍축산대표), 이광선(서울축산대표), 오위문(새한축산대표), 권시태(김천동물대표), 김종철(진주축산대표), 강구남(녹십자수의약품경북출장소장), 박화석(녹십자수의약품 공장화학부장), 유병우(녹십자수의약품기획부 대리)



○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회장 신광순)** : 추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6일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 **이글케미칼 <주>(대표 강순조)** : 업무에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 지난 8월 기획부에 황의석(전국대학교 축산과졸) 씨를 특채했다.



<황 의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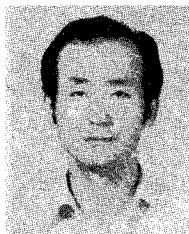
<왕 준연 회장>

○ **한국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연)** : 동회 왕준연회장은 10월 26일 미국과 일본 등지에 한국 고유의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출국하여 자국민들에게는 물론 현지의 교포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고 11월 10일 귀국했다.

○ **한일사료 <주>(대표 차두홍)** : 동사는 11월 1일자로 조동석씨를 총무상무이사로 이범재씨를 생산관리부장으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조 동 석>



<이 범 재>

○ **한국양계기구제작소(대표 김창곤)** : 10월 30일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상가를 개업했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163
전화 : 63-9033, 64-0241

○ **한국미네사료(대표 강아행)** : 동사는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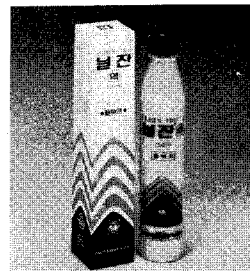
기태 유허공급제(짚섬)와 더불어 고순도 MGO 및 Sodium bicarbonate를 혼합제조한 MGO-Com 시판과 함께 영업활동의 강화로 지난 10월 서울 사무소에 최현호(전 부산 금성제분 근무) 씨를 영업부 과장으로 채용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83 경도빌딩 325호
전화 : 782-8813

○ **홍성사료 <주>(대표 정태원)** : 동사 영업부 이두현과장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 2회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참석키 위해 11월 9일 출국(귀국은 오는 18일 예정)했다. 또한 동대회가 끝난후 마닐라, 홍콩, 대만 등지의 사료공장, 축종별 전문농장 및 대학의 연구 시설 시찰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그 활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약품 <주>(대표 진수창)** : 의약품과 동물약품 겸업체인 현대약품은 영국 ICI사와 기술제휴하여 1차적으로 초광범위 구충제 널잔액을 신발매함으로써 동물약품업계에 본격 진출하게 되었다.

11월중에 발매예정인 본 널잔액은 단 1회 투약으로 위, 장, 폐 및 간의 각종 선충류와 간질충, 촌충까지 완벽하게 구충시킬뿐만 아니라 안충 및 쌍구흡충까지 구충이 가능하다.



○ **한협농장** : 박준영사장(본회 부회장)은 일
본지역의 종계수출이 크게 호평을 받음에 따라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 일본으로 11월 9일 출국
하였다.

박준영사장은 일본외에도 동남아 여러나라들
로부터 종계수입 요청이 있어 필리핀 등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귀국할 예정이며 필리핀에서
는 축산학회 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준영 사장〉

○ **월간종합축산(대표 조성용)** : 사세확
장으로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 강남구 서초동 1-1 역삼동로타리 뉴욕
제과점 (서일빌딩 302호)

전화 : 555-4556, 2316

○ **한풍산업<주>(대표 최죽송)** : 동사
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로 정택
용씨를 영업부 과장대리로 승진발령했다.

○ **한국동물약품<주>(대표 김호석)** : 주식
회사 한국동물약품은 지난 7월부터 전국을 돌
며 지방순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세미
나는 동사의 제품설명과 축산분야에 대한 올바
른 지식보급을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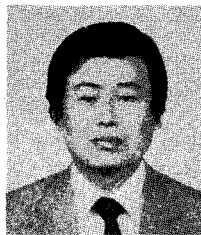
○ **축협중앙회(회장 김일로)** : 축협중앙회는
인사개편에 따라 문기한씨를 조사부축산관측과
장으로 한창수씨를 기술지원단과장으로 각각 발
령했으며 조홍래씨는 양돈사업장장으로 김철호
씨는 충남대 농대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 **신기농장(대표 이상윤)** : 신기농장의 이
강남전무, 조성남업무부장, 이상수농장장은
10월 4일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각지의 우
수한 원종계농장, 종계농장, 브로일 러처리공
장, 축산기구 제작공장 견학과 양계 춘추사
주최로 센다이에서 열린 제 5회 양계·양돈
전시회를 참관하고 10월 11일 귀국했는데
특히 일본에서의 양계사양관리의 기계화대책,
하바드종계 및 실용계의 능력·종계 및 부화장
의 경영방침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 좋은 성과
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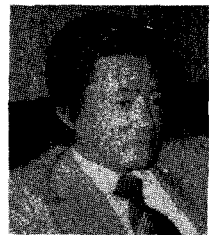
○ **중앙케미칼<주>(대표 김무진)** : 사무실
을 아래와 같이 이전했다.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89번지 한
신빌딩 602호

전화 : 783-8661~5



〈이현정 사장〉



〈김무진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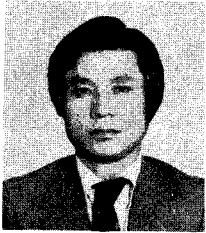
○ **태정식품(대표 이현정)** : 동사는 82년
10월 13일 전자동시설의 도계장 및 최신육가공
공장 설치허가를 얻어 내년 3월에 완공을보아
4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이번에 설
치될 도계장은 시간당 3,000~3,600수의 도계
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동사는 육계도계 및 육
계가공업체의 선구자로서의 결의에 차있다.

주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130-2

○ **이화약품<주>(대표 이정협)** : 동사는
이정협사장을 대표이사로 권태영씨를 전무이사
로 박수경씨를 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 과학축산(대표 이태일) : 그동안 계속 사세를 확장해 오던 동사의 이태일사장은 지난 9월 22일 공장증축을 앞두고 외국의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사료첨가용 항생물질로서는 가장 새롭고 특유한 장점이 많은 「엔라마이신」의 국내 단독공급계약 체결등을 목적으로 한 10여일간의 외유를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했다.

동사는 또한 지난 9월 20일자로 영업부 차장에 민운기씨를 발령했다.



〈김상곤 사장〉



〈이태일 사장〉

○ 세원사료 <주>(대표 김상곤) : 10월 4일부로 김상곤사장은 세원사료를 인수하여 새로운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서울미원 <주>(대표 임철수) : 동사는 최근 농장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출하 설비를 트랜스 백을 이용한 리프트 시설로 계획하고 대규모 농장에 설치를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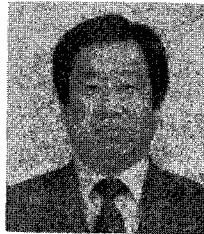
리프트 설치비용은 전액을 서울미원측이 지원하여 일정기간 상환토록 하며 설치를 희망하는 농장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 수의사국제학술대회 : 인도 수의사회 제 22차 학술발표대회가 인도 Assam 의 Gauhati 에서 1982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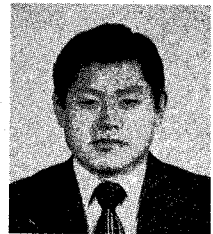
관심있는 분이나 참가를 원하는 분은 대한 수의사회 (323-0526)로 문의하면 된다.

○ 천호부화장 : 이계육사장은 지난달 대만, 일본 등지의 양계업계를 시찰하고 11월 4일 귀국하였다.

동남아에 중계수출을 위해 시장조사가 목적인 2주간 여행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중계수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고 한다.



〈이계육 사장〉



〈김영환 사장〉

○ 마니육중 : 김영환사장은(본지 편집위원) 중동지역에 양계산업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차 지난 10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였는데 11월 10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지부장 박영인) : USFGC(미국 사료곡물협회)는 종전의 교환전화외에 전용전화를 증설했다.
전화 : 752-2306

○ 유태종(고대 교수) : 지난달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식생활개선운동에 공이 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태종 교수는 현재 본지에 「닭고기 예찬」을 연재하고 있다.

○ 축협중앙회 돼지 콜레라 긴급 방역 실시 : 축협은 농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돼지콜레라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해서 돼지 콜레라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의 돼지 전체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함과 아울러 전국 가축시장과 돈사 및 사육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